

주요 통계

1 과학 기술

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 통계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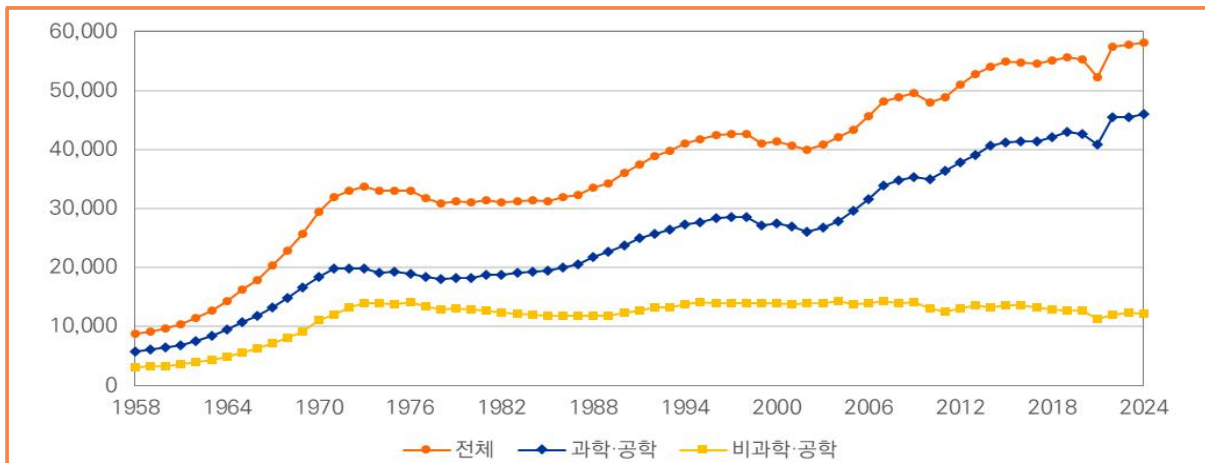
미국 국립과학재단(NSF) 산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(NCSES)는 '박사 학위 취득자 설문조사(SED)'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인적 자원 투자의 척도인 박사 학위 수여 현황과 학위 취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, 전공 분야 및 졸업 후 진로 경향을 분석한 보고서*를 발표('26.3.)

* Doctorate Recipients from U.S. Universities : 2024

→ 미국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(NCSES)는 박사급 인적 자원에 대한 점진적 투자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'2024년 박사 학위 취득자 설문조사(SED)' 결과를 발표

- 2024년 미국 대학이 수여한 연구 박사 학위 수는 총 58,131개로, 2023년 (57,806개) 대비 소폭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
- 지난 20년간 과학·공학(S&E) 분야 박사 취득자는 65% 급증한 반면, 비과학·공학(Non-S&E) 분야는 15% 감소하며 학문적 쏠림 현상이 심화

〈 미국 대학이 수여한 박사 학위 수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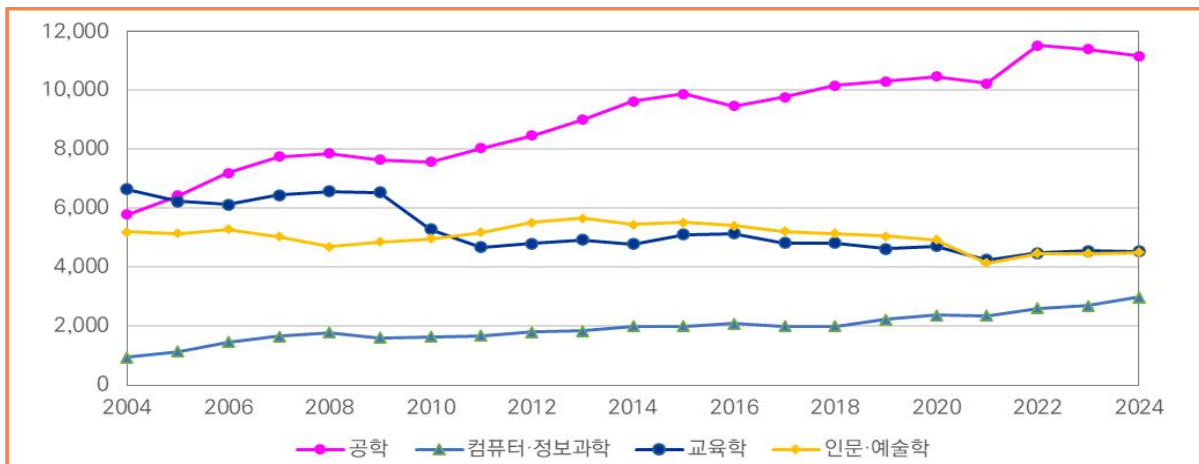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(2026) Doctorate Recipients from U.S. Universities: 2024. Figure 1

- 전체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중은 2004년 45%에서 2024년 48%로 상승하였으며, 특히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그룹 내 여성 비중은 54%를 기록하며 남성(46%)을 상회
- 시민권별로는 지난 20년간 임시 비자 소지자의 박사 취득이 76% 증가했으며, 특히 컴퓨터·정보과학(61%), 공학(54%) 분야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과반을 차지

- 과학·공학 분야 내에서는 공학(14% → 19%)과 컴퓨터·정보과학(2% → 5%)의 비중이 20년 전보다 크게 확대된 반면, 비과학·공학 분야에서는 교육학(16% → 8%)의 비중이 큰 하락세를 보임

〈 미국 대학이 수여한 박사 학위 수 〉



출처 :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(2026) Doctorate Recipients from U.S. Universities: 2024. Figure 7 & 8

- 미국 내 박사 학위 취득자의 졸업 직후 확정 진로(Definite Commitments) 비율이 전년 대비 전 분야에서 하락하며 단기적인 고용 시장의 위축 현상이 확인
 - 2024년 과학·공학 분야의 확정 진로 비율은 70%로, 2014~2016년의 저점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 대비 물리 과학 및 수학·통계학 등 주요 분야에서 다시 하락 전환
 - 심리학(80%)이 전 분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확정 진로 비율을 유지하며 견고한 수요를 증명한 반면, 생물·의생명(63%) 분야는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공별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온도 차 확인
- 지난 20년간 학계(Academia) 진출 비중이 급감하고 산업체(Industry/Business) 진출 비중이 2배 이상 성장하며 박사급 인력의 주된 활동 무대가 민간 영역으로 이동
 - 미국 내 학계 고용 비중은 2004년 56%에서 2024년 40%로 크게 낮아진 반면, 산업 및 비즈니스 부문은 동기간 급성장하여 학계와 대등한 수준(40%)의 핵심 고용처로 부상
 - 특히 수학·통계학(73% → 39%)과 컴퓨터·정보과학(53% → 28%) 분야의 학계 진출은 2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, 최근에는 생물 및 공학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산업계 진출 비중이 50% 내외에 육박해 산업계 선호 현상이 뚜렷

출처 :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 (2026.3.13.)
<https://nces.nsf.gov/pubs/nsf26315>